

이주노동자의 산재 경험

임용현 상임활동가

용현: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“작은 사업장 이주 노동자에게도 안전할 권리를”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. 특집 1부에서는 섹알 마문님, 에코 다르미야디님, 최경식 목사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

마문: 2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섹알 마문이라고 합니다. 저는 2003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 투쟁에 함께했었고, 그 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2014년도부터는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

에코: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코라고 합니다. 한국에서 외국인상담지원센터 통역 상담원으로 13년 가까이 일했습니다. 지금은 인도네시아 친구들 지원이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경식: 저는 2009년부터 글로벌미션센터라는 이주노동자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를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경식 목사입니다. 상담센터, 쉼터, 교육장을 마련해 해마다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한국어, 노동권,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픈 친구들은 병원에 데려가는 일도 하고요. 상담 활동도 집중 사업 중 하나입니다.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이주노동자들이 대기기간 중 쉼터에 머물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충을 나눠주기도 합니다.

작업장 위험을 감내하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라는 굴레

용현: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

하잖아요.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겠거니 짐작은 되지만, 실제로는 어떻게 궁금합니다.

예코: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업종은 제조업이고, 그다음 어업이 많은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건설업도 많았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대요. 어딜 가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언어 문제 같아요. 일단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꾸짖고 화내는 사장님들이 많고요,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임금체불이나 산재처럼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많아요.

경식: 저희가 쉼터 운영을 하는데 일 년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들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.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사업장 변경 문제죠.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,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서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. 이직을 원하는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치명적인 건강 손상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사업주로서는 이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떠나버리면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 거라고 봐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거든요. 제가 볼 땐 상담 내용의 적어도 60~70%는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

마문: 지금으로서는 고용허가제가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.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.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돈 많이 벌어서 무사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. 그런데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건강했던 사람들이 일하고 3개월, 6개월 지나면 허리 아프고 골병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이 일을 몸에 익힐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데, 사업주가 처음부터 힘든 일을 시키고 무조건 끝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니까요. 몸이 망가져도 그냥 참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, 그중 일부가 사업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주노동자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죠. 임금은 너무 낮는데 일하는 환경까지 위험하면 이직을 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

그런데 정부나 회사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고민하지 않죠.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‘고용 기간 채우면 어차피 떠날 존재’이고, ‘언제든지 갈아끼워도 되는 부품’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.

부실한 사후 대응에 예방 대책은 꿈도 못 꾸

용현: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현장에서는 허리나 무릎, 팔목 같은 부위에 통증을 수반하는 신체 부담 작업이 흔하잖아요. 또 설비가 너무 낡아서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, 안

전설비나 보호장구 같은 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도 하고요. 대표적인 제조업 산재 위험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

마문: 한 공장에서 철판을 가공 기계에 실어 나르는 일을 이주노동자 한 사람이 맡고 있었어요. 크레인 같은 장비가 있었다면 이 노동자가 느끼는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이런 가공 기계에는 끼임 사고를 막는 안전 장치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. 위험구역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있대요. 그런데 이 센서가 작동되면 생산 속도가 느려진다고 안전 센서를 꺼두거나 아예 제거하는 일도 수두룩하다고 들었어요.

경식: 저희 쉼터에 들어온 친구가 절곡기라는 가공 기계에 왼손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어요. 엄지 빼고 손가락이 다 절단될 뻔했는데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해서 접합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어요.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활 기간에 저희 쉼터에 들어오게 됐는데요. 이 분은 산재는 승인됐지만, 회사에서 통원 치료를 하지 뭐 하러 쉼터에 들어갔냐면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했습니다. 이 친구에게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물어봤더니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계 조작 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서두르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이주노동자를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안전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데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고, 산재 처리도 원활하게 안 이뤄지다 보니 예방 위주의 대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에요.

예코: 얼마 전 강원도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된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와 전화 상담을 했어요. 이 분이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어서 옮기는 일을 반복해서 했나 봐요. 초반에 허리가 좀 아파서 쉬는 시간을 갖게 해 달라고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‘지금은 업무시간이라 안 된다’라고 거부했대요. 근무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됐을 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 진료를 요구했더니 사장이 ‘당신은 한국에서 일할 자격 없으니 당장 떠나라’라며 강제 추방 협박까지 했다는 얘길 들었어요. 



▲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
FM <월담의 노동it수다> 76
회 방송 다시듣기.

※ 다음 화에서는 ‘이주노동자가 바라는 노동안전’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